

자연생태힐링

서부권







자연생태힐링

아름다운 금강과 수려한 함라산을 배경으로 떠나는
정이 있는 따뜻한 여행!

풍요롭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함라한옥마을의 한옥체험과
금강 변을 따라 달려가는 자전거는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필수 코스

함라한옥마을
옹포곰개나루
입점리고분전시관
익산산림문화체험관



자연생태힐링

함라
한옥마을

함라한옥마을

전통한옥과 돌담길 사이에서 즐겨보는 선비놀이





함라산길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인 함라 삼부자집. 김안균·조혜영·이배원 등 근대 만석꾼 가옥을 둘러싼 함라한옥마을에서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향교, 돌담길에서 느껴지는 정겨움을 흠뻑 맛볼 수 있다.

예로부터 살기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넉넉한 인심을 한가득 안고 여유를 한껏 느껴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코스

2015년부터 시작돼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는 함라한옥삼부자축제 시즌에 맞춰 방문하면 현감 순력행차 재현을 비롯해 함열향교 대성전에서서의 공자 신위참배, 전북무형 문화재 제1호 익산목발노래 공연 등 이색적인 추억을 담아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자연생태힐링

함라 한옥마을



함라한옥체험관

지난해 6월 문을 연 함라한옥체험관은 전통 주거문화 체험과 한옥에서의 고급스럽고 특별한 휴식을 맞출 수 있다.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민속놀이와 한복 체험(대여 및 판매), 천연 황토염색, 한지공예, 인절미 떡메치기, 제철과일 수제청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인접해 있는 함열향교와 연계한 다례교실, 예절교실, 선비문화체험 등은 아이들 인성교육에 효과만점이다.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 063-856-3535

🌐 <http://hamr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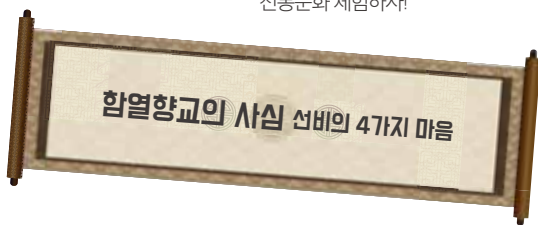
함열향교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향교에 공자를 모신 사당을 두고, 유학을 장려했다. 나라에서 각 지방에 세운 학교 가운데 하나인 함열향교는 공자의 뜻을 기리는 큰 행사로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사당에 향불을 피워 올리고, 매년 봄·가을에는 제사(석전대제)를 지냈다.





유생복, 한복 입고 함열향교에서
전통문화 체험하자!



자연생태힐링

웅포
곰개나루

웅포곰개나루

금강 줄기 따라 즐기는 낭만





서해낙조 5선 중 하나인 웅포곰개나루, 진정한 자연 속 휴식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

금빛으로 물드는 금강을 곁에 두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야영의 낭만을 즐길 수 있고, 그 옆으로 난 자전거길을 달리며 복잡한 삶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좋다.

특히 캠핑장부터 시작돼 금강을 끼고 이어진 자전거길은 강바람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코스. 금강을 따라 완만한 경사로 돼 있어 아이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1박2일 일정을 잡아 캠핑까지 준비한다면 금상첨화.

방문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웅포곰개나루 캠핑장, 강바람이 살랑일 때마다 꽃잎은 흔들리고

마음은 설레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면, 바다가 아닌 강으로 지는 해를 보며 가족들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은 일반캠핑장 58면, 오토캠핑장 6면으로 조성돼 있으며, 개수대, 샤워장 및 화장실, 금강정(구절초동산), 덕양정, 전망대, 족구장, 체육시설(운동기구) 등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



자연생태힐링

웅포
곰개나루

금강명월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자태

서해낙조 5선 중 하나이면서 네티즌 선정 베스트 그곳 선정 등 이미

아름다운 풍광 하나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

붉게 물을 들이는 저녁노을은 물론, 바람에 이는 은빛물결이 카메라 셔터를

재촉하는 이곳에서 멋진 추억을 남겨 보자.



자연생태힐링

웅포
곰개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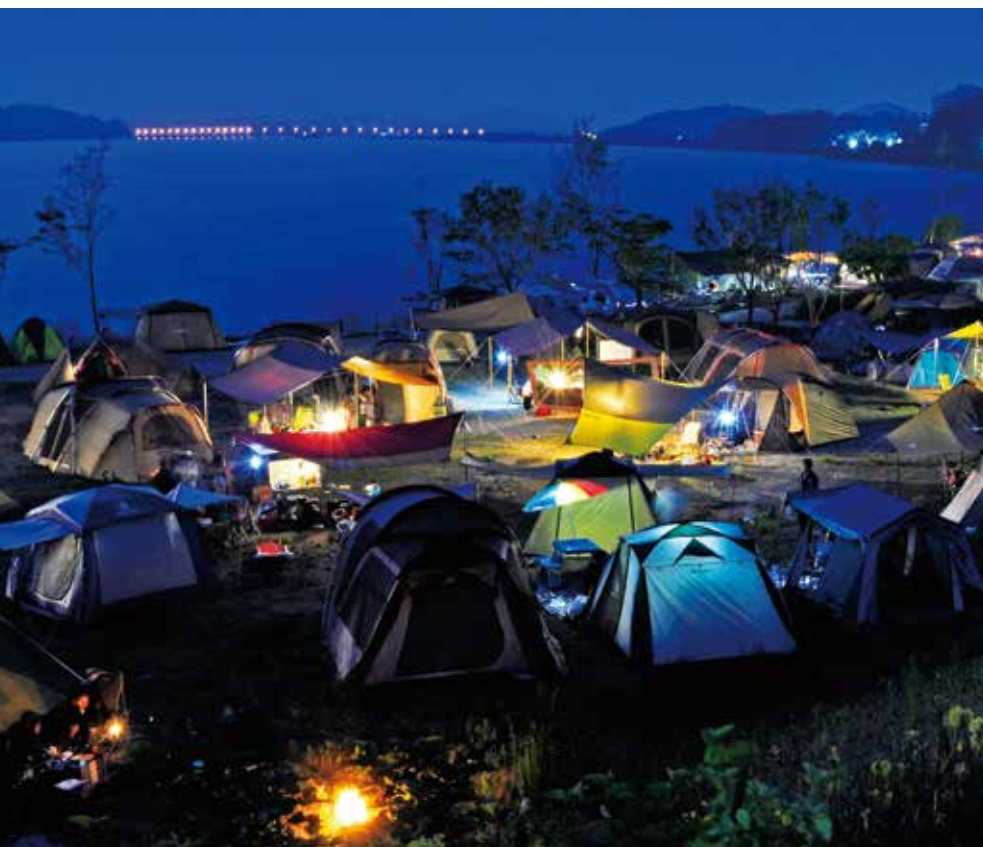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캠프 ~~

연휴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다고?

얼른 캠핑장비를 챙겨 웅포곰개나루로 가자.






금강변 천혜의 경관은 물론이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육장 입점리고분전시관, 불교문화의 역사가 담긴 송림사, SNS에서 인기몰이 중인 익산교도소세트장 등 주변에 기볼 만한 곳이 넘쳐나는 웅포에서 캠핑을 하며 힐링도 하고 역사공부도 하는 것은 어떨까.



바퀴를 타고 오로 강바람

부드러운 강바람이 자전거 페달을
구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몸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느낌 같은 느낌.
자전거 한 대와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면 준비 끝.



-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
-  사용 당일 13:00 ~ 익일 낮 12:00
-  휴무일 없음
-  063-862-1578
-  <http://camping.iksan.go.kr>
캠핑장 사용일 2주전부터 예약 가능

익산시민은
30% 감면

자연생태 힐링
입점리고분

입점리고분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만이 전부가 아냐






고도 익산의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은 무엇? 왕궁터와 미륵사지라고 답한다면 절반만 맞춘 셈.


미륵사나 왕궁보다 무려 200여년 앞선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 익산의 대표 유적이 있다. 입점리고분군이 그 주인공. 입점리고분은 백제시대 중심세력의 무덤으로, 익산이 고대 중심지였음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역사유산 중 하나다.

입점리고분전시관에는 입점리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 금동신발 등의 재현품이 전시돼 있다. 정교하면서 부드러운 이음새와 금동 위에 새겨 넣은 무늬들이 백제의 수준 높은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이곳에 전시된 금동관대나 금동신발


모두 당시 일반 평민들은 할 수 없었던 것들이어서, 이것들이 발견된 무덤이 일대 지방을 지배했던 귀족 세력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전시관 뒤편에는 발견된 고분군이 있는 그대로 펼쳐져 있다. 발굴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옹포리 백제 무덤 떼는, 발굴 당시의 고분에서 자연석마다 번호를 매겨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와 복원했다.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보다 200여년 앞선 5세기에도 익산이 백제의 중심지로서 활약했음을 상상해 본다면, 입점리고분에 대한 의미도 새로워질 터. 큰 강과 너른 평야라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익산이 고도로서 위용을 과시했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곳이다.

 익산시 옹포면 입점고분길 80

 09:00~18:00

 입장료 무료

 1월 1일, 매주 월요일

 063-859-4634



굴식돌방무덤

무덤의 주인은 누구?

익산지역에 대한 백제의 직접 통치가 이뤄진 4세기 이후, 마한 전통을 유지 하려는 집단과 백제의 귀족으로 편입된 집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입점리고분의 굴식돌방무덤에 묻힌 주인공들은 그중 백제의 귀족으로 편입된 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



입점리고분전시관

꽤나 가파른 지형에 '숨이 턱턱'

함라산에서 금강변을 따라 뻗은 산등성이의 꼭대기에서 줄지어 발견된

고분군은 가파른 지형에 위치해 있다.

가운데 배수로를 두고 양쪽에 산 능선의 중심부까지 길이 조성돼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 함정(?). 평소에 운동 좀 할 걸이라는 후회가 막심하다.

능선 중심부에 올라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중심부에는 98-1호 고분부터 능선을 따라 자그마한 고분들이

줄지어 있으며, 가운데 제일 큰 86-1호 고분 아래로 전시관까지의 전경이 장관이다.

자연생태 힐링
입점리고분



전시관에 먼저 둘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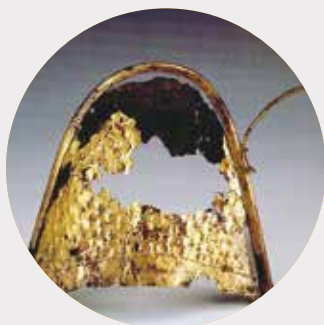
입점리고분군에 도착하면 먼저 전시관을 둘러보며 고분의 형태와 제작 방법, 출토된 유물 등을 살펴보고 나서 고분군을 찾길 권한다. 눈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을 쌓아 놓으면, 보다 풍부한 시각을 가지고 고분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



출토 유물

역시 백제의 후손, 보석의 도시 익산

전시관 안에는 금동관모, 금동관대, 금동신발, 금귀걸이, 목걸이 등 발굴 당시 출토된 유물들의 재현품이 전시돼 있다. 틀을 먼저 만들어 주조하는 형태로 만든 귀걸이나 장신구는 '당시 기술로 가능했던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화려한 느낌. 더구나 귀한 금만으로는 만들기 어려워 동을 섞었다는 점은 감탄을 절로 자아내기 충분하다. 보석의 도시 익산에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귀금속 가공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자연생태힐링
익산산림문화
체험관

익산산림문화체험관

국내 최북단 야생녹차밭에 새로 문을 연 힐링공간






익산산림문화체험관은 최북단 야생차


군락지에서 채취한 야생차 잎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수천평은 족히 돼 보이는 녹차밭에서 푸른 기운이 싱그럽게 다가오는 곳. 할라산 중턱에 자리한 익산산림문화체험관은 건물 앞 나무데크 아래 소나무 사이로 촘촘히 심어진 차밭이 장관을 이룬다. 전라북도 최북단에서 야생녹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한 이곳은 숲 카페와 다도체험실, 목공체험실, 제다체험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인근에 5.8ha 규모의 야생차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숲 해설사가 배치돼 무료로 숲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매월 10월경에 열리는 차문화축제에서는 녹차음식과 세계 차 체험, 차밭걷기, 차 마사지, 차 만들기 등 차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와 국악공연, 중국차 시연, 명상음악, 시낭송 등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오감을 통해 자연과 친화력을 높일 수 있다. 야외체험학습장(숲 밭줄놀이, 하늘보기, 경사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대피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다.

 익산시 웅포면 녹차마을길 83-36

 10:00~18:00

 (단체체험-사전예약)

다도 : 10,000원 / 제다 : 20,000원(성인기준)

 063-843-1910



함라산입점임도

웅포면 입점리고분전시관 인근에서부터 송천리 송림사 인근까지 9.18km의 함라산입점임도는 등산과 트래킹, 삼림욕 등 레저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품숲길이다. 특히 익산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단풍나무 길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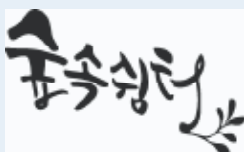
수년 전부터 익산시가 심은 산벚나무, 청단풍, 느티나무 등이 싱그러움과 청량감을 주는 자연터널을 이루고 있고, 탁 트인 금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금강변 전망대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광을 자랑한다.


가을 단풍 시기에 맞춰 오면 금상첨화.

길이 완만해 무릎과 발목 등 관절에 무리가 없고, 곳곳에 쉼터와 벤치, 나무데크 등이 조성돼 있어 초등학교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트래킹도 가능해 자전거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숲길을 오르느라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조차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곳은, 39.6km에 달하는 함라산 둘레길과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입점리고분전시관과 송림사, 함라삼부잣집, 웅포캠핑장, 웅포골프장, 익산산림문화체험관, 최북단야생차군락지 등이 있어 다양한 나들이 코스 선택이 가능하다. 쉬어가는 여유가 있어 더욱 좋은 명품숲길.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절로 힐링이 되는 함라산입점임도에 한번 가보자.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686번지 ~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119-1번지



숲 해설사

숲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별도의 예약만 하면, 숲 해설사가 무료로
힐링 아이템을 전해 준다.





전라북도에 야생차 군락지가?

웅포면 입점리 구룡목마을 입구, 도로명 주소로는
웅포면 녹차마을길 83-36.

이곳은 북위 36도 03분, 동경 126도 53분으로 대한민국
야생차의 북방한계지(야생차가 자라는 최북단 지역)다.
푸른 용단과 파란하늘의 만남은 싱그럽고 더운 낮에
청량감까지 더해준다.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주말·공휴일 제외)


해설시간

10시, 14시, 16시
(약 1시간 소요)

만나는 장소

산림문화체험관 앞 센터

- 별도의 예약 없이 시간에 맞춰 참여
하시면 됩니다.
- 가상화회시(폭설, 강풍)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이 있는 따뜻한 여행!



스토리가 있는
서부권



청량감에 일몰을 더한 힐링!

반나절 코스



초록색 차밭에서 숲 해설사가 전하는
힐링 아이템, 최북단야생차군락지의
녹음이 주는 싱그러움, 탁 트인 금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품숲길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코스
등산이나 트래킹을 좋아한다면 절대
놓치지 말자.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게 될 것!!
다도체험과 차 만들기 등의 체험과 명품숲길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필수!!



청량감에 일몰을 더한 힐링!

하루 코스



초록을 테마로 한 반나절 코스에 산등성이를 따라 줄지어 있는 백제시대 무덤들과 금강명월이라 불릴 만큼 황홀한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는 웅포곰개나루의 일몰을 더한 여정.

오전에 명품숲길을 따라 걸었다면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백제시대 무덤군에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 보자.

수준 높은 백제시대의 장인정신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웅포곰개나루의 일몰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서해낙조 5선 중 하나로 강물 속으로 저무는 해를 배경으로 찍는 인생샷은 필수!!



1박 2일 코스

한옥과
금강에
살어리랏다!

함라한옥체험관·삼부자집·함열학교



우선 함라한옥체험관 예약이 필수.

체험관에 짐을 풀고 함라 삼부자집과 돌담길을 걸어보는 것은 물론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한복 체험(대여 및 판매), 천연황토염색, 한지공예, 인절미 떡메치기, 제철과일 수제청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체험해 보자. 가족 단위로 왔다면 아이들 손을 잡고 인근 입점리고분전시관에서 살아 있는 역사교육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다. 함라한옥체험관 부대시설인 찻집 아홉마디항기에서 전통차, 제철과일청, 커피 등을 마시고 함라도문대작 식당에서 시골백반, 닭백숙, 한우곰탕 등을 맛 볼 수 있다.



용포곰개나루·용포캠핑장

용포곰개나루·용포캠핑장



우선 용포캠핑장을 예약하고 자리를 잡자. 금강변을 따라 걷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대여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날려 보는 것도 좋다. 캠핑의 낭만을 한껏 즐기며 허기를 채웠다면, 이제 함라산 명품순길에 오를 차례. 길이 완만해 무릎과 발목 등 관절에 무리가 없고, 곳곳에 쉼터와 벤치, 나무데크 등이 조성돼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트래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임도를 따라 최북단야생차 군락지를 거쳐 다시 캠핑장으로 향하면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기 마련. 금강변으로 사라지는 해를 놓치면 평생 후회. 꼭 카메라에 담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

